

經濟危機와 女性勞動市場의 變化

張芝延*

▷ 주요 목차 ◁

- I. 問題의 提起
- II. 女性의 經濟活動과 失業
- III. 女性勤勞者의 雇傭條件
- IV. 要約 및 結論

I. 問題의 提起

IMF 경제위기와 그 뒤를 이어 진행된 구조조정과정은 지난 고도성장기 동안 형성되어 온 노동시장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 대기업부문의 장기고용 관행과 이에 따른 평생직장 의식이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이었다면, 1997년 이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거대한 추세를 맞이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부문의 장기고용 관행이 퇴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들의 생성과 소멸에 따른 노동의 이동도 매우 활발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률 7~8%대의 고실업시대를 경험하였고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4~5%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평생직장 의식도 퇴조하였다. 취업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 시대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기의 순환에 따라 변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에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 韓國勞動研究院 研究委員.

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추가노동력 가설(added worker hypothesis)’은 실업률이 높을 때에는 남편의 소득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경제위기와 고실업시대에는 가족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럴 때 여가시간의 가치는 증가하고 유보임금(또는 의증임금, reservation wage)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여성들은 이전에 원하던 임금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도 기꺼이 취업을 원하게 된다.

‘취업포기(또는 실망실업) 가설(discouraged worker hypothesis)’은 실업률이 높은 시장조건에서는 취업을 희망했던 여성들 중 많은 사람이 구직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임금(market wage)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인적자본을 가진 사람은 의증임금의 수준을 낮추어 하향취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자본이 부족한 사람은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특히 여성은 의증임금의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취업하는 대신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은데, 이것은 여성의 경우 ‘임금노동’의 대안이 ‘여가(leisure)’가 아니라 ‘가사노동’이 되기 때문이다. 즉, 가사노동은 여가보다는 임금노동을 대체하기가 쉽다. 달리 말하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선택을 하기가 남성보다 쉽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두 가설이 불황 때 어떤 노동자집단이 영향을 더 받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불황 또는 경제위기가 고학력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일차적 노동자군(primary workers)’에게 주로 영향을 미친다면 여성들의 추가적인 노동력 공급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경제위기가 저학력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차적 노동자군(secondary workers)’에게 있어서 그 타격이 더욱 크다면 인적자본이 취약한 여성을 중심으로 실망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서구사회의 경험에 근거하여 경제위기가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Rubery, 1988), 경제위기와 여성의 고용 사이에 어떤 일정한 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국가의 산업구조 특성과 역사적으로 결정된 가부장제의 영향력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함의는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에 따라 경제위기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강이수·신경아, 1998). 서구에서처럼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성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의 뒷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며, 특히 기혼여성의 참가율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한번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된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돌아가지 않고 노동력의 주요 구성원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게 된다. 루버리(1988)는 이것을 ‘노동시장 참여의 반전불가능성’이라고 하여 불황시에 여성고용이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워낙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가 낮은 사회에서 경제위기를 맞

게 된 경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이고 이들 비경제활동 여성 중에는 실망실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촉진시킨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과 낮은 시장임금,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족구조 등은 경제위기시 특히 상층,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잔류하기보다는 쉽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의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하층계급의 심각해지는 생활고는 하층노동계급 여성과 빈곤층 여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 비공식부문 등에서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킨다. 이에 따라 여성의 취업 및 고용구조는 상대적으로 더욱 더 열악해진다. 즉,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의 여성화(feminization of labor)와 함께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취업구조의 악화는 바로 빈곤의 여성화라는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정진성 외, 미발간).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급속한 구조변화 과정에서 여성고용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여성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이들이 겪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의 주제들을 다루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KOSIS)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거시적인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를 요약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1999년 6월에 조사한 「여성노동복지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¹⁾

1) 「여성노동복지조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을 서울시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으로 하여 1,001명의 여성을 직접 면접의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경제활동참가 여부와 고용상태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경우 ① 일자리의 산업과 사업체 규모 등 해당 사업체의 특성과 ② 직업,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 일의 특성, ③ 임금근로자 개인의 직업만족도, IMF 이후 경험한 근로조건의 변화 등에 관한 질문들을 하였고,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의 경우 ① 사업의 종류, 규모 등 사업체의 특성과 ② 사업과 관련하여 응답자가 하고 있는 역할과 이것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 ③ IMF 이후 수입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실업자인 경우 ① 이전에 하던 일의 내용과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과 ② 현재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 ③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과 정부의 실업대책 수혜 여부에 대한 질문 등을 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① 실망실업 여부에 대한 질문, ② 의중임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학력과 취업경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남편 또는 아버지의 학력과 경제활동, 소득에 관한 질문, 가족생활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女性의 經濟活動과 失業

1. 취업자 규모의 變化

IMF 경제위기를 전후한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자의 수를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남성취업자의 수는 533천명 감소한 데 비해서 여성취업자의 수는 467천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취업자의 수는 5,195천명으로 8,030명이었던 남성에 비하여 그 수가 적었으므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 39.3%에서 38.5%로 감소하였다(표 1 참조).

이렇게 여성취업자의 수가 격감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 시기는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였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도 고용조정으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던 시기였다. 이 때 여성근로자의 감소폭이 컸다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가 경제위기시에 더 큰 타격을 받아 도산이나 인원감축이 많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개별 기업에서 고용조정을 할 때 여성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인원감축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모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표 1〉 성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남 자	여 자	여성 비율
1993	7335.05	4458.55	37.80
1994	7617.57	4707.8	38.20
1995	7904.86	4878.7	38.16
1996	8022.55	5042.27	38.59
1997	8030.07	5195.39	39.28
1998	7497.96	4692.59	38.49
1999	7570.26	4952.22	3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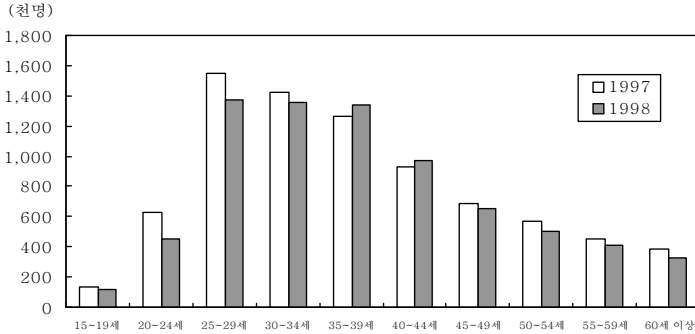
취업자수의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그림 1 참조), 남녀 모두 20대의 젊은 연령대의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지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대 초반 취업자의 격감이 두드러

진다. 이 그림상으로 보았을 때, IMF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젊은 여성들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남녀 연령별 취업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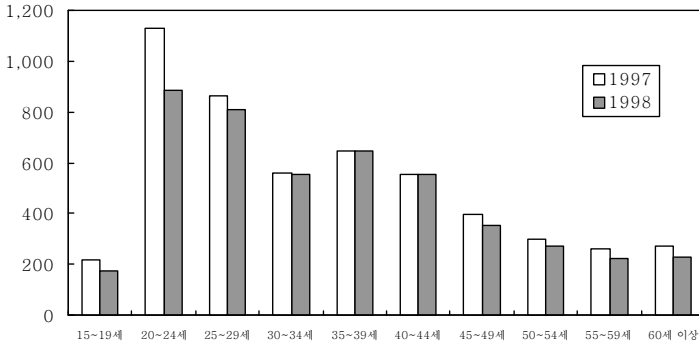
(천명)

〈남 자〉



〈여 자〉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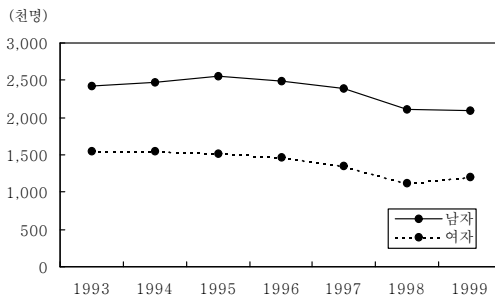


[그림 2]는 주요 산업분야별로 취업자의 절대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것은 경제위기의 영향이 각 산업분야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제위기가 여성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남성과 비교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기의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줄어든 근로자의 절대수 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워낙 적었으므로 비율적으로 보면 여성의 감소비율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근로자의 증가가 남성의 증가추세를 상회하고 있었는데, 1998년 한 해 동안 이 산업분야의 여성근로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금융·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는 남성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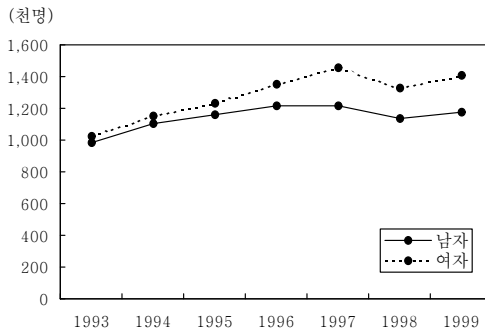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1999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뿐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였다.

[그림 2] 산업별 성별 취업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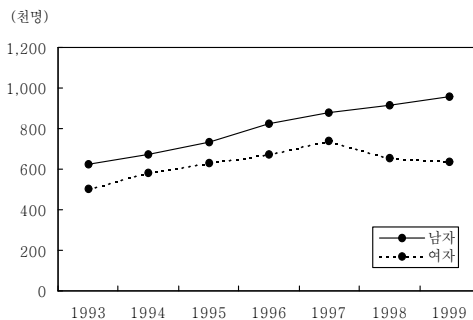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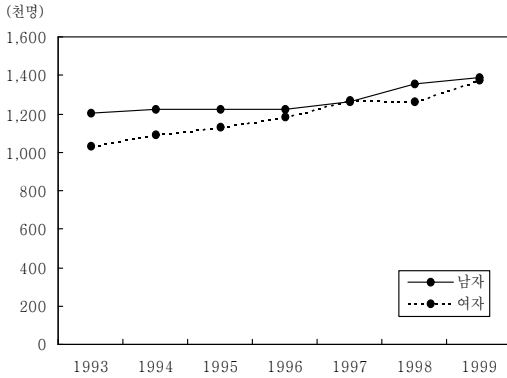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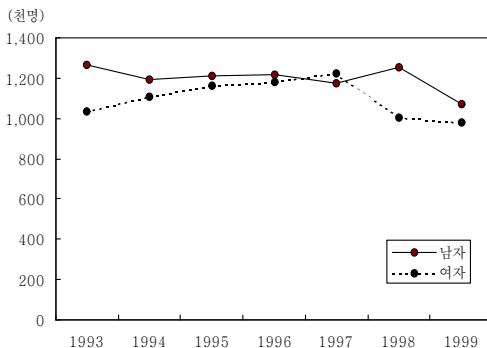


직종별로 근로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그림 3 참조),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남성은 1998년에는 오히려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9년에 급감하는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는 IMF 직후에 종사자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1999년에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남성근로자는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종사자수의 증감이 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여성종사자는 1997년까지는 800천여명에서 1,300천여명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8년에는 뚜렷한 감소를 보였다. 기능직 종사자의 경우는 남성의 수가 여성을 크게 앞지른 직종이고 1998년의 종사자수의 감소도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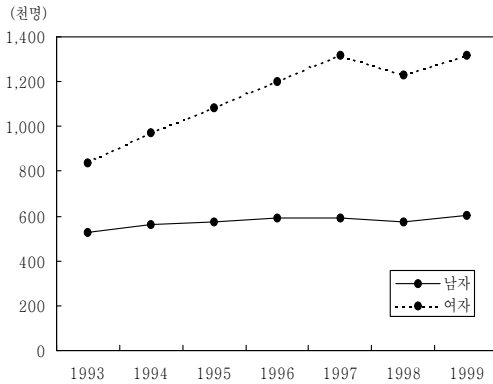
여성근로자의 산업·직업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볼 때, 매우 분명한 현상은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개인서비스업 등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취업자의 탈락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여성취업자의 탈락이 두드러진다.

(그림 3) 직종별 성별 취업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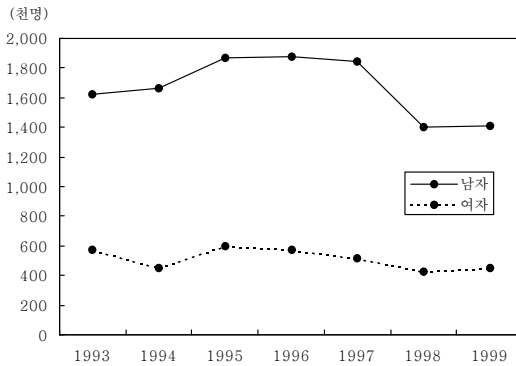
〈사 무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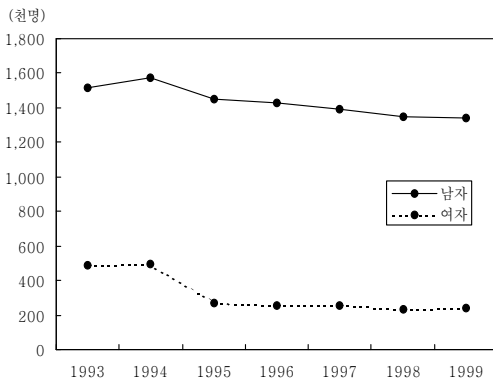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종사자〉



〈장치·기계조작직〉



2. 실업자 규모와 실업률

이렇게 여성취업자의 규모와 이들의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으

나, 이것이 곧 여성실업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모두 실업자가 된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에 여성의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나 남성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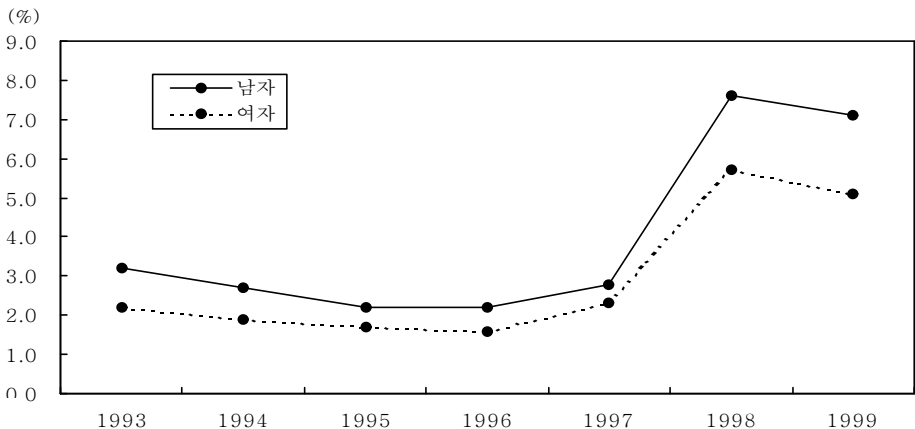
여성 취업자수의 감소가 큰 데 비해서 이러한 현상이 실업률에 모두 반영되지 않고 남성보다 낮은 실업률로 나타나는 것은 많은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률이나 실업규모의 성별 차이를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함께 논의하여야 하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사가 있으나 구직에 실패하여 포기하고 있는 실망실업자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표 2〉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실업자수		실업률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1993	376	175	3.15	2.20
1994	335	155	2.75	1.89
1995	280	140	2.25	1.67
1996	291	135	2.30	1.57
1997	352	204	2.76	2.29
1998	983	478	7.62	5.58
1999	911	442	7.07	5.05

(그림 4) 성별 실업률 추이



3.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면에서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0.4%포인트 감소하였으나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절대규모는 약간(약 13만명) 증가한 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이 2.5%포인트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면서 절대규모면에서도 33만명이 감소하였다(표 3 참조).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한 것은 경기의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취업자수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9년에 남성의 경우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아주 미세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표 3〉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 : 천명, %)

	전 체		남 자		여 자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1997	21,662	62.2	12,772	75.6	8,891	49.5
1998	21,456	60.7	12,893	75.2	8,562	47.0
1999	21,634	60.5	12,889	74.4	8,745	47.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여성 경제활동상태의 결정요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노동시장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던 1999년 상반기에 조사한 자료(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여성노동복지조사」)를 토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대신 취업자가 될 가능성, 그리고 실업자로 구직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으로 generalized logit 분석을 실행하였다. Generalized logi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logit}_{ij} = \log[\pi_{ij}/\pi_j]$$

우리의 분석모델에서 i 는 한 설명변수의 변수값이고, j 는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나타

내는 변수값이다. 따라서 어떤 여성이 비경제활동상태(변수값 3)로 남아있지 않고 취업할(변수값 1) 가능성은

$$\text{logit}_{i1} = \log[\pi_{i1}/\pi_{i3}]$$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비경제활동상태(변수값 3)로 있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자(변수값 2)로 있을 가능성은

$$\text{logit}_{i2} = \log[\pi_{i2}/\pi_{i3}]$$

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가 generalized logits 분석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모델은

$$\text{logit}_{ik} = \alpha_{ik} + x_i \beta_k$$

이다. 여기서 α_{ik} 는 상수항의 모수(parameter)이며 β_k 는 회귀계수(regression parameter)이다.

설명변수로는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수, 미취학 자녀수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경제활동상태, 남편의 임금수준, 가족 중 실업자 유무, 부채 유무 등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변수, 그리고 계층의식과 성 역할에 대한 의식 등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식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표 4>에 제시한 분석모델은 -2Log Likelihood가 1945.9의 값을 갖는 full model 인데, 이것을 상수항만을 갖는 baseline model과 비교하면 chi-square 값이 1907.1 (df=1926)로 나타나 이 모든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다른 모든 변수를 통제 한 상황에서도 20대 여성은 50대 여성보다 비경제활동상태로 있지 않고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미혼여성은 기혼여성보다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녀가 1명인 상황은 2명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지만 자녀가 없는 여성은 2명인 여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취업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취학 자녀의 수도 예상했던 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은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지 않고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실업자로 있게 되는 것은 대학을 다닌 사람보다는 고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 그 가능성이 높았고, 미혼인 경우에 더 높았으며, 자신이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성 경제활동상태의 결정요인

변수명	logit(취업/비경활)	logit(실업/비경활)
상수항	0.62(0.56)	0.13(0.57)
연령(50대)		
20대	-0.24(0.20)	-0.33(0.20)*
30대	0.41(0.16)*	0.11(0.16)
40대	0.26(0.18)	0.35(0.18)*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	-0.30(0.21)	-0.43(0.21)*
고졸	0.07(0.13)	0.15(0.13)
혼인상태(기혼)		
미혼	1.14(0.23)***	1.00(0.24)***
자녀수(2명 이상)		
0명	0.55(0.20)**	0.22(0.22)
1명	-0.20(0.15)	0.02(0.16)
미취학 자녀(2명 이상)		
0명	0.44(0.17)	-0.01(0.16)
1명	0.11(0.17)	0.13(0.15)
남편학력(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	0.06(0.19)	0.21(0.19)
고졸	0.29(0.13)	0.09(0.13)
남편취업(미취업)		
취업	0.17(0.11)	0.06(0.12)
남편임금(만원)	-0.00(0.00)*	-0.00(0.00)
실직여부(실직자 없음)		
가구내 실직자 있음	0.10(0.12)	0.17(0.11)
빛 (없음)		
있음	0.08(0.09)	0.07(0.09)
계층의식(서민층)		
상·중산층	0.04(0.10)	0.22(0.11)*
성평등의식	0.01(0.02)	0.03(0.02)
-2log likelihood	1945.92	
chi-square	1907.11	
df	1296	
p-value	0.62	

주 : 1) *** p<.001, ** p<.01, * p<.1

2) ()안은 표준오차.

이러한 분석결과는 IMF 이전과 이후의 두 시점을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IMF 경제위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 자체에 변화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던 것들이 IMF 시점에서도 크게 달라짐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임금노동에 투여할 시간과 노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사부담의 요인인 혼인상태, 자녀수, 미취학 자녀수 등의 변수는 예상했던 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여가와 근로시간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는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의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노동력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인적자본(교육수준)의 영향력은 고졸 미만 여성과 대학중퇴 이상 여성이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간 비교에서만 유의미할 뿐 그 밖의 경우에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의사

여성 취업자의 수는 IMF 직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실업자가 된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에 여성의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나 남성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크게 감소하였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취업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고 직업을 구해 보다가 안되어 포기하거나 아니면 해 보아도 안될 것 같아서 구직대열에 나서지 않는 실망실업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 여성 실망실업자의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을 해 볼 수는 없었으나 비경제활동상태로 분류되는 여성의 취업의사를 알아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일자리가 있다면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96명인 데 비해서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5명이었다.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약 22.3%의 여성이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 또는 ‘일자리를 찾다가 없어서 포기함’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을 실망실업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여성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육아 또는 가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의사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도 ‘집안 일이나 아이를 돌봐야 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65.8%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의사 여부에는 여성들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나 성평등의식, 계층의식 등 의식의 차이보다도 가구의 경제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뚜렷하였다. <표 5>에 의하면, 가족 중에 IMF 이후 새로 실직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취업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았고, 빛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표 5>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의사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변수명	logit(취업의사 있음/없음)
상수항	-4.64(0.95)***
연령(50대)	
20대	-0.24(0.33)
30대	0.10(0.28)
40대	0.40(0.031)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	-0.29(0.34)
고졸	0.06(0.22)
혼인상태(기혼)	
미혼	-3.01(-)
자녀수(2명 이상)	
0명	-0.23(0.40)
1명	0.22(0.28)
미취학 자녀수(2명 이상)	
0명	0.32(0.28)
1명	0.14(0.26)
남편취업(미취업)	
취업	0.02(0.20)
소득(만원)	0.00(0.00)
실직여부(없음)	
가구원 실직 있음	0.49(0.21)*
빛(없음)	
있음	0.33(0.15)*
정부지원(받지 않았음)	
받았음	0.15(0.42)
계층의식(서민층)	
상·중산층	0.03(0.17)
성평등의식	0.06(0.04)
-2log likelihood	316.04
chi-square	313.27
df	261
p-value	0.0146

주 : <표 4>와 동일.

Ⅲ. 女性勤勞者の 雇傭條件

1. 비정규근로의 증가

여기에서는 취업여성의 고용형태상의 변화와 임금수준을 살펴보고, 특히 1999년 중반에 조사한 「여성노동복지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IMF 이후에 달라진 직장생활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의 구성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표 6 참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남녀 모두 IMF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의 경우 60% 이상이 상용근로자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단지 30.5%만이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IMF 이후 2년간 무려 7.5%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그 감소폭 역시 남성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시·일용직 내에서도 여성의 경우 임시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보다 열악한 고용조건을 가진 일용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종사상지위별·성별 취업자의 구성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상용근로자	남 자	67.8	66.7	64.5	64.8	60.0
	여 자	42.5	40.7	38.0	34.1	30.5
임시근로자	남 자	19.7	21.0	22.8	23.4	25.4
	여 자	40.7	43.1	45.2	47.8	45.6
일용근로자	남 자	12.5	12.3	12.7	11.8	14.6
	여 자	16.8	16.2	16.8	18.1	23.9

자료: 통계청, 『KOSIS Database』.

이렇게 IMF 이후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규근로자가 되는 여성은 누구이며 비정규근로자가 되기 쉬운 여성은 누구인가? 「여성노동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표 7 참조), 여성의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를 구분짓는 주된 요인들은 미취학 자녀의 수를 제외하면 연령이나 학력 등의 인적자본의 요인이

나 혼인상태나 남편의 취업여부 등 여성 개인이 가진 속성이라기보다는 산업분야나 사업체 규모 등 일자리의 본질적인 특성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은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보다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체 규모면에서는 종업원 1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이 정규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비정규근로자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높다.

<표 7> 정규·비정규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변수명	logit(정규/비정규)
상수항	0.93(0.43)*
연령(50대)	
20대	-0.20(0.33)
30대	0.32(0.31)
40대	0.18(0.33)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	-0.49(0.33)
고졸	0.26(0.21)
혼인상태(기혼)	
미혼	-0.10(0.24)
미취학 자녀(2명 이상)	
0명	0.58(0.29)*
1명	0.07(0.30)
산업(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0.49(0.18)**
규모(100인 이상)	
1~9인	-0.45(0.20)*
10~99인	0.67(0.25)**
남편취업(미취업)	
취업	0.32(0.21)
남편임금(원)	-0.00(0.00)
-2log likelihood	327.52
chi-square	262.89
df	229
p-value	0.0615

주 : <표 4>와 동일.

정규 또는 비정규직 근로는 그 자체로 고용생활의 질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변수이

다. 앞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비교해 본 결과가 <표 8>이다. 여기서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고용 형태는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응답자에게 스스로 판단하여 답하게 하였는데, 전체의 75.7%가 상용근로자라고 응답하였고, 23.4%만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임시직과 일용직의 규모가 상당히 과소추정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 1년 미만 1개월 이상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모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여부와 사회보험 수혜여부 등 보조적인 질문을 통해서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지 않거나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임시 또는 일용직으로 파악하도록 지침이 주어진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70% 이상이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계약 없이 일하고 있는 경우와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실제로는 1년 이상 일한 경우를 임시근로자로 파악한 결과이다. 한편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여부를 응답자 자신이 판단하게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대체로 임시직과 일용직의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보다 적게 나타난다.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고용 형태를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도 본 조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규모의 상용, 임시·일용근로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근로시간 형태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 전일제로 36시간 미만이면 시간제로 구분한 결과, 응답한 임금근로자의 21.8%가 시간제 근로자라고 대답하였다.

<표 8>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8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간에 크게 차이가 나서 상용근로자는 평균 93만원, 임시·일용근로자는 50만5천원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차이도 이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임금 결정방식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45.9%가 호봉제라고 응답하였고 연봉제가 14.2%, 도급제나 성과급제가 각각 17.1%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급제와 성과급제의 비중은 상식적인 수준이나 성별로 분류하지 않은 다른 조사의 결과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여성들이 학습지 교사나 생활설계사 등 도급이나 성과급의 형태를 띤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급제와 성과급제, 일당제의 비율이 높았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시간급제와 성과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8〉 고용 형태 및 근로시간 형태별 임금·임금체계

(단위: 명, %)

	고용형태 ¹⁾		근로시간 ²⁾		전 체
	상 용	임시·일용	전일제	시간제 ³⁾	
월평균 임금(만원)	93.18	50.52	94.04	55.11	83.14
t(p-value)	48.507 (.000)		31.225 (.000)		
연봉제	35(14.2)	1(1.3)	34(13.4)	2(2.8)	36(11.1)
호봉제	113(45.9)	1(1.3)	107(42.1)	7(9.9)	114(35.1)
일당제	14(5.7)	15(19.0)	19(7.5)	10(14.1)	29(8.9)
시간급제	3(1.2)	24(30.4)	18(7.1)	20(28.2)	38(11.7)
도급제	42(17.1)	7(8.9)	5(2.0)	5(7.0)	10(3.1)
성과급제	42(17.1)	24(30.4)	41(16.1)	25(35.2)	66(20.3)
기타	25(10.2)	7(8.9)	30(11.8)	2(2.8)	32(9.8)
X ² (p-value)	101.571(.000)		65.009(.000)		
전 체	246(75.7)	79(23.4)	254(78.2)	71(21.8)	325(1000)

주 : 1) 고용 형태의 분류는 응답자 자신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였음.

2)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 전일제로 36시간 미만이면 시간제로 파악하였음.

3) 시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즉 일이 있으면 더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32명이므로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45.7%를 차지하였음.

3. IMF와 직장생활의 변화

〈표 9〉는 1999년 서울지역의 여성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노동복지에 관한 조사」의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325명의 IMF 이후 직장생활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봉급 삭감과 수당 및 보너스 삭감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일감 감소, 업무의 증가,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 순이었다.

IMF 이후 직장생활에서 경험한 변화를 근로자 개인의 특성과 일자리의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력, 혼인상태, 가족상황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보다는 산업, 사업체 규모 등 일자리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매우 큰 것 같다. 봉급이 감소했다고

<표 9> IMF 이후 직장생활에서 경험한 변화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변수명	봉급 감소	수당 감소	회사일감 감소	업무부담 증가	휴가관련 감소	퇴직권유	비정규직 증가	부부사원 해고
상수항	2.95**	2.18*	1.49	-2.07*	-3.74**	-1.63	-2.78*	-4.36
연령(50대)								
20대	-0.19	-0.26	-0.44	-0.10	-0.51	-2.40*	0.43	0.07
30대	0.21	-0.03	0.04	0.07	-1.19	0.86	-0.40	0.69
40대	0.06	-0.01	0.04	0.05	0.85	0.59	-0.26	1.07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	0.53	-0.32	-0.35	0.60*	-1.05	-0.41	-0.30	0.08
고졸	-0.07	0.11	0.50*	-0.63**	0.24	-0.21	-0.46*	0.24
혼인상태(기혼)								
미혼	0.08	-0.42*	0.34	0.07	0.67	1.25*	0.27	-0.96
자녀수(2명 이상)								
0명	-0.06	0.37	-0.28	0.05	0.01	1.06	-0.22	0.93
1명	0.52*	0.23	0.34	0.23	0.20	-0.38	-0.33	0.27
소득(만원)	-0.00	0.00	0.00	-0.00	-0.00	-0.00008	0.00	-0.01
실직여부(실직 없음)								
가구원 실직 있음	0.21	0.11	0.07	0.21	0.17	0.33	-0.17	-0.16
없음								
있음	-0.06	-0.02	-0.22	-0.21	-0.41	-0.71	-0.21	-0.48
계층의식(서민층)								
상·중산층	-0.22	-0.23	0.18	0.32*	0.58	0.09	0.39*	0.20
성평등의식	-0.06	-0.06	0.01	0.04	-0.03	-0.14	0.02	-0.20
산업(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0.38*	0.28	-0.40*	-0.03	-0.71*	0.29	-0.34	-0.04
규모(100인 이상)								
1~9인	-0.03	-0.39*	0.48*	-0.71	-0.37	-0.86	-1.72***	1.88**
10~99인	0.25	0.35	-0.43*	0.33**	-0.31	0.46	0.86**	-
고용형태(임시일용)								
상용	-0.18	0.05	-0.28	-0.10	0.57	0.80	-0.09	0.67
근로시간(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0.01	0.07	-0.21	0.45*	0.51	-0.17	0.15	0.30
임금(만원)	-0.00	-0.00	-0.01*	00.00	0.01	0.01	0.00	-0.00
-2log likelihood	372.00	362.17	357.95	311.8	101.94	92.57	254.82	59.35
chi-square	372.00	362.18	357.96	311.87	101.94	92.57	252.05	59.36
df	304	304	304	304	304	304	304	305
p-value	0.0046	0.0122	0.0180	0.3656	1.0000	1.000	0.9865	1.0000

주 : <표 4>와 동일.

〈표 10〉 고용안정성과 근로복지 의식변화에 대한 proportional odds model 분석결과

변수명	감원대상 우려	비정규직화 우려	승진어려움	여직원 우선감원	휴가신청 곤란
상수항 1	-3.33***	-2.94**	-2.70**	-2.77**	-3.04**
상수항 2	-1.29	-0.21	-1.02	-0.65	-1.03
상수항 3	-0.38	0.93	0.00	0.02	-0.31
상수항 4	1.51	-	0.83	1.61	1.08
연령(50대)					
20대	0.45	0.62	0.69	0.31	-0.02
30대	0.41	0.13	0.24	0.21	-0.28
40대	0.93*	0.73	0.93*	1.06*	0.84*
혼인상태(기혼)					
미혼	-0.00	-0.44	-0.22	0.06	-0.16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고졸 미만	0.10	-0.00	0.47	-0.42	0.35
고졸	0.59*	0.51	0.49*	0.06	0.55*
미취학아동(2명)					
0명	-0.48	-0.51	-0.38	-0.27	-0.11
1명	-0.19	0.13	-0.06	-0.09	-0.00
산업(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0.18	0.62*	0.40	0.19	0.08
직업(생산직)					
사무직	1.14	0.33	-1.74	-1.46	-0.26
판매서비스직	0.63*	0.19	0.43	1.01***	0.94***
규모(100인 이상)					
1~9인	0.33	1.00	0.48*	0.59*	0.45
10~99인	-0.09	-0.12	-0.05	0.48*	0.14
고용형태(임시·일용)					
상용직	-0.11	-0.04	0.01	-0.20	0.07
근로시간(36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0.63*	0.62*	0.09	0.47	0.16
임금(만원)	-0.00	-0.00	-0.00*	-0.00*	-0.00*
소득(만원)	0.00	0.00	0.00	0.00	0.00
실직여부(없음)					
가구원 실직있음	-0.39	-0.45	-0.63*	-0.23	-0.62*
없음					
있음	0.73**	0.69**	0.40*	0.53*	0.11
계층의식(서민층)					
상·중류층	0.38	0.16	0.25	0.03	0.45*
성평등의식	0.06*	0.06	0.04	0.07*	0.08*
Proportional Odds Assumption test.					
chi-square	255.8314	252.5003	255.6820	219.3897	139.9878
df, p-value	63(0.001)	42(0.0001)	63(0.0001)	63(0.0001)	63(0.0001)
모델에 대한 likelihood ratio test.					
상수항포함모델	755.710	611.552	875.091	767.073	808.124
모든설명변수포함	709.006	575.117	831.064	715.006	761.167
chi-square	46.704	36.434	44.027	52.066	46.957
df(p-value)	21(0.001)	21(0.0195)	21(0.0023)	21(0.0002)	21(0.001)

주 : <표 4>와 동일.

응답한 사람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종사자 중에 많았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일감이 감소한 경우는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뚜렷하였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체 근로자일수록 근로자 자신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중규모 사업체 근로자는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보다 회사 내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경험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보다 수당이 감소하거나 비정규직의 증가를 경험할 확률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원래부터 수당의 개념이 별로 없고 정규·비정규 구분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0>은 종속변수가 서열변수인 경우(Ordinal Response)에 사용하는 기법인 Proportional Odds Model을 사용하여 고용불안과 직장생활의 곤란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먼저 다섯 단계의 응답이 개별 응답간에 간격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사이의 차이나, ‘조금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의 차이가 같다고 보아도 좋은지를 테스트하는 Proportional Odds Assumption 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각 단계간의 간격이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혼인상태나 미취학 아동수의 영향력은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서 미취학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있는 여성보다 고용의 불안이나 승진, 휴가 등에서의 곤란은 덜 겪는 것으로 일관된 경향이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비교했을 때와는 달리 이들 변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보았을 때에는 40대 여성이 50대 여성보다 고용불안이나 승진의 어려움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여성이 고학력 여성보다 감원대상이 될 것 같은 불안과 승진의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직이나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생산직 종사자에 비해서 고용불안이나 승진, 휴가 등에서의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으며, 시간제 근로자일수록 고용불안을 더 느끼고 소득이 낮은 여성일수록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성평등의식이 강한 여성일수록 감원대상이 될 것 같다는 불안과 그 중에서도 여성이 우선적으로 감원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I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인 증가추세 속에서 1998년에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지적하고, 취업자와 실업자의 규모와 비율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

성취업자의 내부구성을 산업과 직업별로, 그리고 종사상 지위와 고용 형태, 근로시간 형태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 분포상의 특성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시에 서구사회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반전불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여성취업자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급격히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여성의 취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위기가 여성의 고용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특정한 산업분야에서의 여성의 감소나 여성 비정규근로자의 증가 등 경제위기 이후 고용구조에 나타난 변화는 매우 뚜렷하며 이러한 변화의 여파는 향후의 노동시장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또한 성차별의 시장결과로 나타나는 여성노동력의 고용조건을 밝히고자 하였다. 임금, 근로시간, 고용의 안정성 등 다양한 고용조건 면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가 겪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경제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은 임시·일용직의 증가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고 임시·일용직은 증가해 왔으나 이러한 현상은 IMF 이후 그 추세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한데 이것은 주로 여성 일용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즉,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도 더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향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규 또는 비정규근로는 그 자체로 고용생활의 질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변수이다. 1999년에 조사된 「여성노동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느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데에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산업분야나 사업체의 규모 등 일자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한 산업·규모의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성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용이나 임시·일용으로 고용 형태가 결정되면 이들간에 임금체계는 물론 임금수준, 직업만족도 등의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에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임금이나 고용형태 등 중요한 고용조건에 성별 격차가 IMF 이후 심화되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고용조건에 악화 속에서 성별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었는지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직장생활에서 경험한 변화나 직업의 안정성과 복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여성이 임금이나 고용의 안정성면, 그리고 사내복지의 측면에서 악화를 경험하였거나 악화를 우려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參考文獻

- 김승권·이상현·양혜경,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김영란, 「빈곤의 여성화, 사회복지, 세계화」, 『여성과 사회』, 제9호, 1998.
- 김태홍,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과 과제」,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문, 1998.
- _____, 「여성의 생애노동시장 참가현황과 과제」,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_____,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 _____,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과제」,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 박경숙,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 방안』, 제 6회 아시아여성 우호교류 심포지엄 자료, 1998.
- _____, 「여성과 남성 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 활용의 비교 및 정책제안」,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7호, 1999.
- 심영희, 「실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여성실업문제, 출구를 찾자』,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미간행자료집, 1998.
- 이현송,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1996.
- 장하진, 「여성고용과 실업대책」, 『경제위기와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연구소 미간행자료집, 1998.
- 정인수,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 정진성 외,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여성복지』, 2000, 미발간.
- 鄭眞和, 「女性勞働力の 構成」, 『産業動向』 9, 1991.
- _____,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구조」,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
- 통계청, 『지난 30년간의 고용사정의 변화』, 1994.
- _____,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과제』, 1997.
- _____,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1997.
- _____, 『경제활동조사연보』, 각년도.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테이프』, 1997, 1998.
- _____, 『월별고용동향』, 1990, 1996, 1999.
- 한명희, 「불안고용을 중심으로 본 여성노동의 현실과 과제」, 『財政』, 445, 1998.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1999.
- Afshar, haleh & Carolynne Dennis(eds.), *Women and Adjustment Policies in the Third World*,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2.

- Armstrong, Pat & Mary Cornish, "Restructuring Pay Equity for a Restructured Work Force : Canadian Perspectives",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Blackwell Publishers, 1997.
- Beeckey, V. & T. Perkins, *A Matter of Hours: Women, Part-time Work and the Labor Mark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 Beneria, Lourdes & Shelly Felman(eds.), *Unequal Burden : Economic Crises, Persistent Poverty, and Women's Work*, Westview Press, 1992.
- Bernhardt, E., "The Choice of Part-time Work among Swedish One-Child Mother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4, 1988.
- Blank, R. *The Role of Part-time Work in Women's Labor Market Choices Over Time*, *AEA papers and proceedings*, 1989.
- Blank, R., "The Dynamics of Part-time W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4911, 1994.
- _____. "Understanding Part-time Work", *Research in Labor Economics*, 11, 1990.
- Clain, S. & K. Leppel, "Further Evidence of the Added-Worker Effect among White Couples", *De Economist*, 114, 1996.
- Dewit, D., "Determinants of the Timing of Labor Force Transitions among Ever-Married, Ever-Worked, Women in Canada",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 Ontario, Canada, 1997.
- Elson Diane, "Male Bias in Structural Adjustment", in Afshar, Haleh & Carolyne Dennis(eds.), 1992.
- Ferber, Marianne A. and Brigid O'Farrell(eds.), *Work and Family : Policies for a Changing Work Force*, Washington : National Academy Press, 1991.
- Lester, B., "Part-time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the U.S.A.: A Cross-Section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5, 1996.
- Milkman Ruth, "Women workers and the Labor Movement in Hard Times : Comparing the 1930's with the 1980's" in *Households and the Economy*, edited by Lourdes Beneria & C.R. Stimpson Rutgers University Press, 1987.
- OECD. *Women and Structural Change: New Perspectives*, 1994.
- Roderic Martin, Judith Wallace, *Working Women in Recession: Employment, Redundancy and Unemployment*,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Rubery, Jill (ed.), *Women and Recession*, London : RKP, 1988.

Rubery, J., Horrell, S. & B. Burchell, “Part-time Work and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In A. Scott (ed.), *Gender Segregation and Social Change*, 1994.

Tilly Chris, *Half a Job : bad and good part-time jobs in a changing labor market*, Philadelphia : Temple univ, Press, 1996.